

한국학 학술회의 논문
실크로드 산악 (散樂)의 中.韓.日 전래

권 오성 (한양대 명예교수)

I. 내두리

실크로드 지역이 지금 현재 중국의 신강성에 속하는 방대한 지역이지만 수나라, 당나라 때의 칠부기·구부기·십부기 등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1921년 이전 구소련에 속했다가 지금 현재는 독립된 나라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타지흐스탄·키르기스탄 그리고 몽골 등이 육로 실크로드의 지역이며 거기에서 서양으로 가는 길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지역에서 연행되던 악·가·무가 혼합된 형태의 공연예술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지금 현재도 공연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백희가무 혹은 산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공연예술의 장르에 대한 명칭은 많은 종류가 있다. 중국문헌 중 주례에는 다음과 같이 산악에 대하여 기록되어있다.

"旄人, 掌教舞散樂 舞夷樂。凡四方之以舞仕者屬焉"¹⁾

한나라때에도 산악이란 야인(野人)이하의 음악 중 잘하는 것을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러한 류의 공연예술을 향악이라고 하였으나 그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실크로드와 중국·한국·일본 등의 지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원초적인 지역인 실크로드 지역, 즉, 서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공연예술을 산악이라고 일단 통칭하고 그 산악 중에 일부가 실크로드 지역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

『삼국사기』(三國史記) 악지(樂志)의 신라 향 맨끝에, "최치원(崔致遠)의 시에 '향악잡영오수'(鄉樂雜詠五首)²⁾가 있어서 여기에 적는다" 라고 하고, 다음의 다섯 수의 칠언절구(七言絕句)를 기록하였다.

금환(金丸)

廻身掉臂弄金丸

月轉星浮滿眼看

1) 《周禮春官宗伯》(下)

2) 삼국사기 『三國史記』 권32 11ab 악지(樂志)

從有宜僚那勝此
定知鯨海息波瀾

은 몸을 휘두르고 두 팔을 내저어
금환을 떼굴떼굴 힘차게 굴리니
명월이 굴러가고 별도 반짝반짝
고요한 바다 물결엔 고래도 춤을 춘다.

월전(月顛)
肩高項縮髮崔嵬
壤臂群儒鬪酒盃
聽得歌聲人盡笑
夜頭旗幟曉頭崔

올라간 두 어깨에 목조차 들어가고
머리 위에 상투는 뽀족하게 나왔어라.
노랫소리 들리자 웃음소리 요란하며
저녁에 단 깃발 밤새도록 휘날린다.

대면(大面)
黃金面色是其人
手抱珠鞭役鬼神
疾步徐趨呈雅舞
宛如丹鳳舞堯春

황금색 탈 쓴 사람 누구인지 모를세라.
구슬 채찍 휘두르며 귀신을 쫓아낸다.
달아나며 춤추다가 으쓱으쓱 낮은걸음
너울너울 춤을 추는 봉황새와 같아라.

속독(束毒)

蓬頭藍面異人間
押隊來庭學舞鸞
打鼓冬冬風瑟瑟
南奔北躍也無端

고수머리 남빛 얼굴 못 보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뜰에 와서 난(鸞)새 같이 춤을 춘다.
북 소리 등당등당 바람 소리 살랑살랑
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끝없이도 춤을 추네.

산예(狻猊)
遠涉流沙萬里來
毛衣破盡着塵埃
搖頭掉尾馴仁德
雄氣寧同百獸才

서역에서 유사 건너 만리길을 오느라고
털이 모두 떨어지고 먼지까지 묻었구나
머리를 흔들며 꼬리마저 휘두르니
운갓 짐승 어른되는 네가 바로 사자런가.³⁾

이 중 월전(月顛)에 대해서는, 일본 아악곡의 '월천악(越天樂 Etenraku)과의 관계를 논하였다. 관현 월천악은 일본제의 악곡이지만, 그 명칭은 서역계라 하는 기술은 독자를 놀라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납득할 수 있는 방증을 서술하려 한다.

최치원은 신라시대 말에 가까운 헌안왕(憲安王) 2년(858년)에 태어났고, 12세 때 당나라에 건너가 학문에 힘썼고 높은 관직에 오른 적도 있지만, 고국에서는 난세를 허무하게 여겨서 만년에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에 은거한 사람이다. 그는 시문(詩文)이 뛰어났고, 『계원필경』(桂苑筆耕)·『최치원사륙집』(崔致遠四六集) 등을 당나라에 남겼다. 그 시는 전당시(全唐詩)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치원이 읊은 위의 칠언절구의 다섯 수는 어쩌면 당나라에서의 견문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향악'(鄉樂)이라면 한국에 있는 음악의 세 갈래인 아악(雅樂)·당악(唐樂)·향악(鄉樂)의 향악, 곧 한국의 속악(俗樂)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단, 이 세 갈래의 분류는 고려시대에서 확실한 역사서로

3) 金在喆<1907~1938> : 『조선연극사 朝鮮演劇史』

나온 것이고 신라시대에는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나라의 음악' 이라는 뜻인지도 모른다. 『삼국사기』가 고려시대의 편지이므로, 고려시대의 세 갈래법을 신라시대에 적용시켰을 가능성도 있다.⁴⁾

[2] 신라시대의 악곡

근래 한국의 학자 대부분이 이 점을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 5수(五首)로 불려진 다섯 악곡을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함은 어떠한가. 그러나 가령 이 시(詩)가 당나라의 악기(樂伎)를 견문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도, 최치원은 당나라 문헌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한 것으로서 귀중한 사료이다. 여기서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 다섯 악곡이 신라시대에 행해진 것으로, 이하 그 내용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싶다.

① 금환(金丸) : 중국에서는 농환(弄丸)이라 하고, 금속을 칠한 공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다. 한나라의 화상석(畫像石)에 자주 나타나고, 중국에 옛 부터 있던 산악(散樂: 雜伎·百伎·雜戲)이다. 잡희를 벌이는 연기자의 공력이 상당해서, 몇 개의 구슬이 손에서 달과 별이 움직이는 듯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모습이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② 월전(月顛) : 월전(月顛)·월전(月殿)·월천(越天) 모두가 음통(音通)이고, 외래어의 한자 음역(音譯)일 가능성이 크다. 어원은 위 글 어의 호탄(Khotan)을 한자로 차자(借字)한 것이다.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머리에 가발과 가면을 쓰고 서역의 오랑캐 차림을 한 일군의 왜소한 유생들의 모습이 펼쳐지고 그들은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미쳐 날뛰면서 각종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표현한 무곡과 같은 것이 이것은 골계 가무회로서, 일정한 줄거리와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벽이 될 때까지 공연된다. 일본 무악인 호덕악(胡德樂)을 연상시킨다.

필자는 2006년 8월 현재 중국의 신강성에 있는 화전(和田)에 현지조사를 위해서 갔던 바 현재 화전에서 차로 20분 정도 가면은 옛 도시였던 우전(于田)이란 곳이 있는데 옛 지명으로는 우전(于?)인 곳을 갔던 바, 현재는 그곳에 탈춤같은 것은 없고 옛날 그곳에서 훨씬 먼 곳에 있는 지명은 알 수 없는 곳에 탈춤 비슷한 것이 연행됐었다는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두현의 『한국의 가면극』에서 탈춤의 일종으로 추정된 것은 별로 근거 없는 추정일 수 있다. 이 호탄지방은 신강성에서 옥(玉)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옛 부터 실크로드로부터 많은 옥이 이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옥저(玉笛)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지역에서 왔으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주박물관과 맹사성의 고택에 있는 옥저 등 많은 옥저들이 언제, 어디서 왔던 것인가를 밝혀보면 아마도 이 호탄지역에서 다른 옥기들과 함께 우리나라로 전해졌을 것이다.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마을에 있는 미황사(美黃寺)에 구전되고 있는 설화에 의하면, A.D 600년경에 우전국의 왕이 이 곳에 와서 절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와도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모른다. 일본아악 에텐라꾸의 곡은 월천악(越天樂)이라고

4) 岸辺成雄 著, 宋芳松 譯,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하는 바 삼국사기의 월전(月顛)과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한국의 월전이 실�크로드의 호탄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었다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후쿠오카 지역의 민요로 알려져 있는 구로다부시(黒田節)와도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을 런지 의문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 아악의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알려져 있는 '에텐라꾸(越天樂)'의 악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越天樂の基本的形式

③ 대면(大面) : 황금의 가면을 쓰고 손에 붉은 채를 든 귀신처럼 달리고 혹은 걷고, 봉황새가 새벽에 춤추듯이 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전』(通典) 권146의 산악(散樂) 항목의 가무희(歌舞戲) 항에 대면(大面)·발두(撥頭)·답요랑(踏搖娘)·굴뢰자의 네 가지 기(伎)를 열기(列記)하고, 대면에 대하여,

"대면(大面)은 북제(北齊)에서 나왔다. 난릉왕(蘭陵王) 장공(長恭)은 재주와 용맹함이 있고, 더구나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적군을 대하였다. 일찍이 북주(北周)의 군대를 금용성(金墉城) 아래에서 무찌르고, 그 용맹은 전군에서 으뜸이었다. 북제 사람들은 이것을 장하게 여겨 이 춤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지휘하는 몸짓과 무찌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곡을 '난릉왕입진곡'(蘭陵王入陳曲)이라고도 한다."

라고 해설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무악 난릉왕(蘭陵王)과 닮았다. 일본 무악에서도 큰 금색의 가면을 쓰고, 채를 들고 한 용사가 춤춘다. 당나라의 산악(散樂) 대면과 최치원의 향악(鄉樂) 대면과는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난릉왕은 호복(胡服)의 양당장속을 붙인 달리는 무용이고, 환성악(還城樂 Genzoraku)이나 발두(拔頭 Bato) 등과 같이 교묘하다.

소위 임읍악(林邑樂)의 계통에 속하는 서역계의 악무(樂舞)이다. 이 발두(撥頭)는 『통전』(通典)의 대면에 계속해서,

"발두(撥頭)는 서역에서 나오지 않는다. 호인(胡人)이 맹수에 먹혔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맹수를 찾아내어 죽이는 것을 모방해서 춤으로 만들었다."

라고 있는 발두임에 틀림없다. 하여간 서역지역에서 혹은 중국의 북제에서 수입된 대면이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전래됐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난릉왕(蘭陵王)의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음악이 나소리(納曾利)임으로 나소리-파(波)와 나소리-급(急)의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納蘇利 - 破

拍子十二

The musical score is presented in four systems, each consisting of a Goto (고토) part on a treble clef staff and a Biwa (비와) part on a bass clef staff. The key signature is two sharps (F# and C#), and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score is divided into four measures per system, labeled as '百1' (100-1), '百2' (100-2), '百3' (100-3), and '百4' (100-4). Measure numbers 1, 5, 9, and 13 are indicated at the beginning of each system.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phrasing slurs.

納蘇利 - 急

拍子十二

④ 속독(束毒) : 속독은 일본무악의 우무(右舞)인 고려무(高麗舞)의 퇴주독(退走禿 Taishudoku)·진주독(進走禿 Shinshudoku)의 '주독'(走禿)과 '음통'(音通)임에 틀림없다. '숙덕'(宿德 Shudoku)라고도 쓴다. 속독은 소련령 중앙아시아의 한 지방명의 옛 이름 속디아나(Sodiana 후에 Samarqand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음원으로서, 중국의 사서에 나타난 속특(粟特)에 대단히 가깝다. 일본에서는 현재 우무(右舞)인 고려무에 들어가 있지만, 헤이안조(平安朝) 초기에 좌우(左右) 이무제(二舞制)를 설치할 때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래 당악계의 것도 우방 고려악에 넣었을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서역계의 속독도 우무에 넣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옷차림은 좌우 공통의 습장속(襲裝束)이고, 특별한 모양의 모자를 쓴 것이 특색이다. 우무에 편입되어서 옷차림까지 변한 것일까. 최치원(崔致遠)의 시는, 머리카락이 쭈그러진 얼굴에 남색의 가면을 쓴 이상한 사람이 대열을 만들어 뜰로 들어와, 난(鸞)새(봉황의 일종)가 춤추는 모습을 모방하였다. "태고(太鼓)가 드디어 동동(冬冬)하고 울리는 소리는 바람이 슬슬(瑟瑟) 부는 듯이, 무용수는 그것에 따라 남쪽으로 달리고 북쪽으로 뛰면서 그침이 없다" 라고 표현하였다.

일본 아악 중 고려악에 속하는 숙덕 중 진숙덕의 악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进 宿 德

《仁智要录·高丽曲》谱第4曲
叶 栋 解 译

大食调 (四) 九 (三) 八 (四) 九 (四) 九 (五) 十 (六) 十 (六) 七 (五) 九 (三) 七 (二) 六

進 宿 德

쑥대머리카락에 남색 가면이라고 하면, 우무(右舞)의 납소리(納蘇利 Na-sori)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납소리는 서역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속독(束毒)도 서역계이었음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만약 속독이 신라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원래는 당나라의 호무(胡舞)에도 그것이 일단 신라시대에 들어가, 신라시대에서 일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무에 편입되었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에는 아프라시압 벽화가 있고, 그 벽화 속에 한국의 사신으로 보이는 2명이 보인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케능에 서 있는 무사상의 석상도 혹시나 속디아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신라시대에 사마르칸트와 경주와의 교역과 인적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⑤ 산예(狻猊) : 사자무(獅子舞)이다. 최치원(崔致遠)은 "멀리 사막을 걸어서 만 리를 오고, 털이 부서진 것처럼 먼지를 쓰고,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은 인덕(仁德)으로 길들여 따르는 듯하고, 우람한 춤모양은 백수왕(百獸王)의 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 바로 생각해 낸 것이 신서입도등원통헌(信西入道藤原通憲 : 歿 1159)이 그랬다고 일컬어지는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의 사자무이다. 두 사람의 사자를 사자랑(獅子郎)이 줄을 매어 가지고, 사자아(獅子兒) 두 사람이 마치 사자를 어르는 듯이 따라서 가고, 뒤에서는 나(羅)·세요고(細腰鼓)·손뽕(拵拍子)·대태고(大太鼓)·횡적(橫笛)·척팔(尺八)·박판(拍板)의 음악이 흥을 돋우고 있는 그림이다.

여러 책에서 일본 사자무(獅子舞)의 옛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되고 있는 친숙한 그림이다. 그림의 옆에 『문헌통고』(元의 馬端臨 지음 : 1319년)를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책의 원전인 당의 『통전』(通典)을 인용해야만 하였다. 『통전』 권146의 좌입부기(左入部伎) 항목에 입부기의 제2기인 태평악(太平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태평악(太平樂)은 또 이것을 오방사자무(五方獅子舞)라고 부른다. 사자는 서남이(西南夷)·천축(天竺)·사자(獅子) 등의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 털을 짜서 옷을 만든다. 내려다보거나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친숙하게 어리광부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섯 필의 사자는 제각기 오방(五方)의 색깔, 즉 파랑·빨강·노랑·흰색·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140명이 태평악무를 노래부르면서, 손뽕(拵拍子)치면서 뒤에서 따른다. 그 복식은 모두 곤륜인(崑崙人)의 차림이다.

이 문장은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와 잘 부합한다. 신서(信西)가 『통전』을 읽고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옛날 추고조(推古朝)에 들어온 기악(伎樂)도 사자가 있고, 헤이안조(平安朝) 말기에는 없어졌지만 사자두(獅子頭)와 사자아(獅子兒)의 가면이 현존한다. 그것도 입부기의 오방 사자무 계통이라고 생각된다. 『신서고악도』 사자무는 그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사자무는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이, 수영야유 등에 있는 사자춤이 어디에서 전래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서역의 구자(龜茲)지역에서 구자악과 함께 중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다시 일본까지 전해진 것까지 할 수는 없을 런지 추측이 가능하다.

[3] 서역계 산악(散樂) 전래

이상의 오기(五伎) 중 금환(金丸)·대면(大面)은 분명히 당(唐)의 산악(散樂)이다. 산예(狻猊)도 입부기

(入部伎)에 편입되어 있지만, 원래는 산악임이 틀림없다. 남북조시대(南北朝)와 수시대(隨朝)에 서역 전래의 백희(百戲)가 성행하였고, 그 중에 코끼리(象)·물고기(魚)·용(龍)·거북(龜) 등의 짐승을 모방한 상연물이 있었다. 사자는 그 중의 백미(白尾)였기 때문에 입부기에 편입한 것이다. 당대(唐代)의 서역 기호(嗜好)에도 어울렸을 것이다. 월전(月顛)과 속독(束毒)도 서역계의 산악이었음은 아니었을까. 최치원(崔致遠)의 5수(五首)에 향악(鄉樂)이라는 이름을 붙임은, 산악과 같은 잡기(雜伎)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鄉樂雜詠五首)를 통해서, 서역계의 산악이 당나라에서 신라조에 건너왔던 것인가. 적어도 그것에 관한 지식이 건너왔음에 대하여 알았다. 옛날 추고조(推古朝)에 백제의 미마지(味磨之 Mimashi)가 오(吳)에서 배운 기악(伎樂)을 일본에 가지고 온 것을 상기하면, 한국 고대에 당나라의 산악이 전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악(伎樂)은 사자(獅子 ShiShi)·오공(吳公 Gogo)·금강(金剛 Kon-go)·가루라(迦樓羅 Karura)·바라문(波羅門 Baramon)·곤륜(崑崙 Kon-ron)·역사(力士 Rikishi)·태고(太孤 Taiko)·취호(醉胡 Suiko)의 9기(九伎)로 되었고,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는 서역 색채가 짙다. 미마지는 이것들을 백제에서 상연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측의 사료(史料)에 사자무의 전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앞으로 잘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마무리

최치원은 860년 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였고 당시 12세였다. 18세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후 宣州律水縣尉에 임용되었다. 그때에 중국의 율수현에서 무나(巫儺) 희곡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당서 예문지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율수는 현재 중국 남경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통과 서로 이어져 있는 곳이다. 1994년 한국에 와서 공연한 중국 강회남통의 동자회에 대하여 설명한 남통시 예술연구소장인 차오린(曹林)은 남통의 동자회중에 잡기로 구슬을 가지고 노는 희곡 골계가무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고무(鼓舞)·사자춤 등이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5) 또한 칠부기와 구부기·십부기 중에서 강국기는 최치원 향악잡영오수의 속독과 같은 것으로 현재의 우주베키스탄의 싸마르칸트와 관련이 있다.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의 명칭과 관련된 여러 명칭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曹林, "江淮 南通의 童子戲" 『동아시아의 무속음악』 (2004)

실크로드 명칭		호탄(khotan)		소그드(soghd)	
중국 명칭	산악(散樂) 농환(弄丸)	화전(和田) 우전 (于田,于闐)	산악(散樂)대면	속특(粟特) 칠부기 중 강국기(康國伎)	사자(獅子)
한국 명칭	금환(金丸)	월전(月顛)	향악(鄉樂)대면	속독(束毒)	산예(狻猊)
일본 명칭		월전(越殿) 월천(越天) 흑전(黑田) 구로다부시	나능왕(羅凌王)	숙덕(宿德)	사자(獅子)

이상과 같이 서역지역에서 성행하던 각종 산악이 중국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러한 것들이 고구려와 신라의 전승되어 최치원의 향악잡영오수에 그 모습이 기록되었고, 그것들이 어떠한 경로로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 여러 형태로 남아있고 그 악보가 남아있음으로 이들 산악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남아있는 악보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실크로드 지역의 옛 산악을 재현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악지
《周禮·春官·宗伯》(下)
金在喆, 『조선연극사 朝鮮演劇史』(1933)
岸辺成雄 著, 宋芳松 譯, 『고대 실크로드의 음악』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曹林, "江淮 南通의 童子戲" 『동아시아의 무속음악』(2004)
조유평, 『중국고대음악문화동류일본적연구』 (상해음악학원 출판사, 2004)
이해구, "나소리고" 『한국음악서설』 (1985)
이지선, "삼오요록과 인지요록의 고려악 연구" 『한국음악연구 38집』 (2005)